

12월 26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2월 26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축 성탄'..다우, 엿새 만에 반등 [다우: 8,468.48pt (+0.58%)]	휴일을 앞두고 거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엿갈린 경기지표의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나타났음.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신청이 26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고용악화 우려가 고개를 들었으나, 내구재 주문과 소비지출 감소폭이 예상보다 완만한 것으로 집계돼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음. 최근 낙폭이 컸던 자동차 주가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금융주가 강세를 유지하면서 상승세로 가닥을 잡았음.
유통업종 모처럼 강세..'성탄'효과	경기침체에 폭설과 강추위까지 겹치면서 연말 대목의 하이라이트인 크리스마스에도 매출 부진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소폭이나마 강세를 보였음. 성탄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쇼핑에 나선 고객들의 발걸음이 유통주를 부각시킨 것으로 미 증시관계자들은 풀이했음. 성탄 이후 연말까지 기간은 미국 유통업체들에게 연중 상위 5위 내에 드는 대목으로 꼽힘.
미 재고감소 불구, 유가 급락 지속 [WTI: \$35.35 (-\$3.63)]	미국은 지난주 말 기준 원유재고가 예상을 뒤엎고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미 에너지 정보국(EIA)은 지난주말 기준 원유 재고가 310만배럴 감소한 3억 1,800만배럴을 기록했다고 밝혔음. 플래츠 집계 애널리스트 예상치는 150만배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었음.
고용불안 여전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58만 6,000건을 기록, 전주 대비 3만건 증가했다고 보도했음. 이는 지난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앞서 발표한 전문가 예상치 55만 8,000건도 크게 상회했음. 보다 변동성이 작은 고용지표인 4주 평균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26년래 최고치를 나타냈음.
소비 지표 '희망'	소비관련지표는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상무부는 이날 미국의 11월 내구재 주문이 1% 감소해 무려 8.4% 급감한 지난 10월 대비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으며, 앞서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11월 내구재 주문이 3% 감소했을 것으로 내다봤음. 운송재를 제외한 내구재 주문도 1.2% 늘어나 6.8% 감소한 지난 10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했음.
中-日, 고용 안정책 박차	중국과 일본이 경기 침체기의 고용안정 노력에 박차. 중국은 내년에 공기업이 감원하지 말도록 당국자가 25일 밝힘. 일본도 비정규직에 대한 실업급여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도록 건의.
中, '弗 가치하락'에 '元 키우기' 총력	중국이 24일 홍콩, 마카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과 위안화로 무역 결제를 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뒤 리요우환(黎友煥) 광둥(廣東)성 사회과학원 산업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기축통화 쟁취를 향한 화폐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밝힘.

제목	주요 내용
中 각료 "금융위기 충격, 中 경제 전반으로 확산"	중국 관영통신 신화는 장평(張平)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 3개월 사이 전 세계 침체의 충격이 중국의 연안 지역은 물론 내륙까지 확산되면서 모든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함. 장 주임은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면서 "앞으로 2년간 내수를 부추기기 위한 계획이 조만간 완성될 것"이라고 밝힘.
미.일.유럽, 동시 디플레이션 우려	미국과 일본, 유럽의 금융시장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5일 보도. 신문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악화로 수요가 급격히 저하되면서 향후 10년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점칠 수 있는 예상 인플레이션률이 각국에서 나란히 대폭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통의 영국 소매체인...줄줄이 역사 속으로...청산 돌입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영국 전통의 소매업체들이 줄줄이 청산절차. 수십년 동안 영국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생필품 소매체인 울위스를 시작으로 가구업체 MFI, 차 전문 체인 위타드 오브 첼시, 남성복업체 오피서스 클럽, 음반업체 자비 등 소매업체들이 연말을 못 넘기고 회계법인에 청산을 신청.
포스코, 해외채권 500억엔 발행 성공	포스코는 25일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지난달 200억엔 규모의 변동금리부 공모사채 발행에 이어 지난 24일 500억엔 규모의 사모 사무라이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힘. 이번에 발행한 사무라이 사채는 만기 3년에, 일본 은행간 금리(Yen Tibor)에 가산금리 1.6%를 더한 조건이며 일본계 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이 전량 인수했으며, 이번에 조달된 자금은 브라질 철광석 광산회사인 나미사(Namisa) 인수를 위한 자금과 수입원료 구매자금 결제목적으로 사용할 예정.
경기침체 여파 '내년 취업문 더 좁아진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내년 취업문이 좁아질 것으로 전망됐으며, 올해 기업들이 채용한 규모 2만2566명보다 16.5% 줄어든 수준. 업종별로는 호텔, 조선, 전자·전기, 정보통신 등이 그나마 사정이 나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호텔·언론(-1.8%), 조선(-3.2%), 전자·전기(-4.9%), 정보통신(-6.8%) 업종은 채용규모 감소폭이 한자리수에 그침. 반면 자동차(-50.3%), 금융(-41.9%), 철강·기계(-35.0%) 업종은 많게는 절반 가까이 채용인원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됨.
3년만의 3%대 CD금리...왜 내리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전일보다 0.05%포인트 하락하며 3.98%를 기록했으며 이는 2005년 12월7일 3.96%를 기록한 이후 3년만의 최저치임. 3년 전은 금리인상 사이클이 막 시작되던 때였으며, 한국은행은 2005년 10월 3.25%이던 콜금리를 3.5%로 올린 것을 시작으로 유동성 긴축에 돌입했으며, 급속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으로 한은이 시중에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지금과는 정반대 상황. 때문에 CD금리가 3%대에 돌입했다는 것은 경기가 상승과 하강의 완결된 사이클을 완료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으며, 한은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이 요구될 정도로 경기가 급속한 수축기를 맞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